

카카오톡 점유율 96% 독점 체제 굳어져

이통3사 통합 모바일 메신저 '조인'이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카카오톡'의 독점 체제로 굳어진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카카오톡에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모바일 메신저 '조인(join)'이 오는 1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일, KT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조인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기존 조인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12일부로 일괄 해지된다.

조인은 지난 2012년 12월 이동통신 3사가 카카오톡 견제를 위해 내놓은 모바일 메신저다. 조인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공식 인증한 표준 규격의 모바일 메신저로도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조인은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는 바람에 카카오톡의 이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3월 XOS 버전으로 먼저 서비스된 카카오톡은 출시 1년만에 가입자

대항마 모바일 메신저 '조인' 오늘부터 서비스 종료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카카오톡 월간 실이용자(MAU)는 4006만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96% 안팎에 이른다.

최세훈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열린 실적발표회에서 "카카오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4000만 이상의 MAU를 달성했다"며 "해외 이용자까지 합치면 전체 MAU는 4832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컴즈 대기업 메신저도 잇달아 퇴장

카카오톡에 밀려 서비스를 접은 메신저는 조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삼성전자의 '켓' (2월), 다움 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의 '바이퍼플' (6월)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앞서 NHN(현 네이버) '네이버톡', LG유플러스 '와글', KT '올레톡',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온톡' 등 대기업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도 줄줄이 싹뚨를 봤다.

지난 2011년 2월 선보인 네이버톡의 경우 2012년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NHN은 이를 '라인'으로 통합하는 신의 한수를 구사했다.

모바일 메신저 역량을 라인에 집중시킨 것이다. 철저하게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군림하며 동남아, 남아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 사업)를 무한 확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대리운전 O2O '카카오 드라이버'와 미용실 O2O '카카오 헤어샵'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한 카카오은행' 영업을 시작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성공을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사업자들의 공생, 신규 사업 확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카카오가 진출하는 사업과 벤처 기업들의 주 활동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학 교수는 "현재 카카오는 O2O 사업으로 당장 돈을 번다기보다 일단 시장을 선점해 트래픽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톡을 시장에 빨리 선보여 점유율을 장악한 성공 노하우를 O2O에도 접목하려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O2O 시장을 잠식하는 것보다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이 약진하는 현상이 고무적일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와 공존하는 방안이 전제된다면 카카오의 활약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넥슨, 모바일게임 매출 전년 대비 23% 늘어

넥슨의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 모바일 게임 매출은 2014년보다 23% 증가했고,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8%나 늘어났다.

넥슨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2015년 4분기 및 연간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환율은 100엔당 950.6원을 적용했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1902억3000만엔(한화 약 1조8086억원), 영업이익 622억9000만엔(한화 5921억원), 순이익 551억3200만엔(한화 52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 37%, 88% 증가한 수치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33%다.

4분기 매출은 458억1600만엔(한화 43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신작 '히트(HIT)'가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던전앤파이터'는 중국 인기를 유지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103억1500만엔(한화 981억원), 순이익은 49억9900만엔(한화 418억원)이었다.

순이익은 환차손으로 예상치보다 낮았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23%다.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22%, 4분기 기준으로는 28%를 차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국내 모바일 매출이 전년 대비 78% 경증 뛰었다. 지난해 넥슨은 국내에 모바일 게임 신작 '도미네이션즈' '히트' 등을 연달아 선보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매출 비중은 우리나라(40%), 중국(40%), 일본(11%), 북미(5%), 유럽 및 기타(4%) 순이다.

넥슨 일본법인의 오웬 마호니 대표이사는 "지난 한해동안 세계 최정상급 개발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수한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품질 게임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北리스크에 방위산업株 강세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는 주가 급락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상장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개성공단 입주 상장기업들의 전체 실적에서 개성공단의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의류업체 신원은 11일 전 거래일보다 8.78%(165원) 떨어진 1715원에 마감했다. 신원은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시장의 로만손은 전 거래일보다 13.62%(1450원) 떨어진 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로만손은 개성협동화 공장 법인에 100% 출자해 가동 중이다.

또 개성공단 본단에 입주해 있는 좋은사람들이 16.90% 급락했고, 가전제품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재영솔루션(-23.92%)과 개성공단에서 여성복을 생산하는 인디에프(-18.44%)도 동반 급락했다.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인 현대상선은 50% 이상 자본잠식 소식까지 더해져 전 거래일 대비 19.59% 폭락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의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높지 않아 실

제로 미치는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IBK투자증권 김정현 연구원은 "로만손, 신원, 좋은사람들, 인디에프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상장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개성공단 입주 상장기업들의 전체 실적에서 개성공단의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해당 기업들의 시총이 대부분 2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아 지수 전체에 대한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위산업주들은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스펙로는 전 거래일에 비해 28.28% 급등한 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텍은 가격제한폭(29.93%)까지 올라 3625원에 마감했다. 퍼스텍도 7.45%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3%(56.25포인트) 떨어진 1861.54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이날부터 공단 내 납품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시작됐다.

/이성주기자



블거리 가득

삼성전자 모델들이 11일 별도의 가입 절차나 앱 설치 없이 삼성 스마트 TV를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예능,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33개 채널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신작 저조로 실적 부진

엔씨소프트가 신작 가뭄 속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장수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는 게 엔씨소프트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383억원, 영업이익 2375억원, 당기순이익 1664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수준(8387억원)을 유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 27%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2370억원, 영

이익 749억원, 당기순이익 4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 늘어난 데 비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 32% 감소했다.

연간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 5338억원, 북미·유럽 1249억원, 일본 427억원, 대만 389억원, 로열티 987억원이다.

제품별로는 '리니지' 3129억원, '리니지 2' 630억원, '아이온' 737억원, '블레이드&소울' 1139억원, '길드워' 1005억원, 기타 캐주얼게임 758억원을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트위터, 중요도가 높은 트윗 최상단에 노출된다

트위터(Twitter)가 이용자에게 중요도가 높은 트윗을 선정해 타임라인 최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맞춤 트윗 먼저'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트위터는 '맞춤 트윗 먼저' 표시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11일(한국 기준) 밝혔다.

이 기능은 실시간 순으로 전체 팔로워들의 모든 트윗을 노출해 이용자가 접속하는 시간대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트위터의 단점을 보완했다.

최상단에 노출되는 트윗들은 이용자가 팔로우 관계를 맺고 있는 계정들과 자주 반응을 보이는 트윗, 관심사, 유사한 특징을 지닌 다른 이용자의 활동 등을 분석해 결정된다.

역시 시간 순으로 전체 팔로워들의 모든 트윗을 노출해주는 기존 타임라인은 유지된다.

맞춤 트윗 아래로 이용자의 팔로워들이 올린 모든 트윗을 기존과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을 새로 고치면 맞춤 트윗이 사라진 기존 타임라인을 볼 수 있다. 맞춤 트윗 확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환경 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해제하면 된다.

이 기능은 iOS와 안드로이드용 트위터 앱, 웹브라우저용 트위터 홈페이지(www.twitter.com)에 수주에 걸쳐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트위터는 이번 기능 추가로 이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위터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에서는 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헤비 유저'와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 모두에서 트윗양과 반응이 늘어났다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